

환난 후 휴거설이 옳다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2)

- 읽을 말씀 살후 2:1-4, 계 1:7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환난 후 휴거설이 옳다는 것을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은 환난 후 휴거설을 보여주는 100% 확실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세의 징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 ‘대적하는 자’ 는 적그리스도이고, 휴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설이 아니라 통과설(환난 후 휴거설)이 맞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 에서 환난 전 휴거설이 1830년에 시작된 교리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설은 기독교의 정통교리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 온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의 ‘강림하심’ 은 ‘공중재림’ 이고, ‘주의 날’ 은 ‘지상재림’ 으로 서로 다르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달리 지상재림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불법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는 바울의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입니다. 저는 ‘주의 날’ 과 ‘강림’ 이 같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전후서를 ‘강림하심’ 과 ‘주의 날’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살전 1: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강림’ 을 공중재림으로 ‘장래의 노하심’

을 대환난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준다’ 는 것은 휴거를 통해 대환난에서 건져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5장 9절에서 ‘노하심’ 과 ‘구원’ 이 서로 대비되는 것을 볼 때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환난 전 휴거설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살전 2: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구절도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중재림입니다. 이어지는 3장 13절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고 했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 는 공중재림 때 휴거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이 여기서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자들이 지상재림을 뜻한다고 보는 “주의 날” 이 아니라 공중재림을 뜻하는 “강림” 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십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는 문맥상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고인이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는 자들” 이라고 칭했습니다(4:14). 그 뒤 바울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 후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4:16-17). 그런데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고후 5:8) 주님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이것을 의미할 뿐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그때 휴거한 성도들을 지상재림 때 데리고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3) 살전 4:15 “...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중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 휴거는 불신자들 모르게 몰래 와서 성도들만 데려가는 ‘감추어진 휴거’ 입니다. 그런데 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까요? 이를 통해 감추어진 휴거의 개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살전 5:1-3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대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

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1절은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중재림입니다. 2절에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주의 날” 이라고 불렀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자들의 주장과 달리 사도 바울이 ‘강림하심’ 과 ‘주의 날’ 을 같은 날로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6절에서 바울이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권하는 것을 볼 때 “주의 날” 이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공중재림과 같은 날이라는 것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한편, 3절에 보면 준비된 자들은 휴거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대환난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믿는 자는 휴거되고 불신자들은 대환난에 남겨진다는 환난 전 휴거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5) 살전 5:23 “...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의 ‘강림’ 도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중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상재림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즉 ‘주의 강림’ 과 ‘주의 날’ 을 또다시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성도들도 이때 주를 처음 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1장이 끝나고 2장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라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 강림하심’ 과 ‘주의 날’ 은 둘 다 지상재림을 가리킵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자들(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지상재림의 날인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재림은 단 한 번뿐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도 지상재림을 “강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

라서 1절의 “주의 강림하심” 과 2절의 “주의 날” 은 다른 날이 아니라는 것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더구나 악한 자가 임할 때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미혹되어 멸망할 것을 경고한 후, “**그러므로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썼습니다 (살후 2:13-15).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공중재림 때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난을 통과하며 이런 미혹과 맞닥트리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 권면입니다. 즉 바울이 환난 전 휴거설이 아니라 통과설을 믿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설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미혹입니다.

(5)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재림관

요한은 계시록의 저자로 재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둘로 구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재림을 자세히 언급했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고 한 것을 볼 때 지상재림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계시록 서두부터 공중재림 없이 바로 지상재림을 말합니다. 만약 재림이 둘이라면 5-6절에서 구원을 말하고 바로 지상재림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재림은 지상재림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설은 허구이며 통과설이 진리입니다.

● 나눔과 적용

환난 후 휴거설이 성경적인 진리이며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고 사랑함으로 미혹에 맞서 굳건하게 서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미혹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나누어봅시다.